

좌절된 소속감의 개념분석

김수현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Thwarted belongingness: Concept Analysis

Su-Hyun Kim

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로 개념의 속성을 확인하고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Walker & Avant의 개념분석 방법을 근거로 하였다. 좌절된 소속감의 속성은 왜곡된 신념, 소속욕구 불충족, 소외감, 상호교류와 애정욕구의 불충족으로 도출되었다. 선행요인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 배제 또는 갈등 경험, 완벽주의적 성향, 거부민감성이며, 결과는 자살생각, 행복 및 삶의 만족 감소와 거부에 대한 불안, 우울, 수치심, 외로움, 스트레스 또는 분노, 공격성, 적대감 같은 부정적 정서 및 자기비난, 절망감, 자포자기, 정서표현 억제, 무기력, 관계에서 스스로 배제, 정체성 혼란이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개인의 정신적 건강 및 자살생각과 관련된 예방 가능한 간호중재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향후 좌절된 소속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및 현장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속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주제어 : 좌절된 소속감, 개념분석, 대인관계, 자살생각, 정신적 건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ceptual analysis study on the thwarted belongingness, and was based on the conceptual analysis method of Walker & Avant to make clear concept. Thwarted belongingness can be defined by the following attributes: distorted beliefs, insufficient need to belong, a sense of alienation, and insufficient interaction and affection needs. The prerequisites for thwarted belongingness were social isolation, experiences of exclusion or conflic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erfectionist tendencies, and sensitivity to rejection. The consequences occurring as a result of thwarted belongingness were suicidal ideation, decreased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negative emotions such as anxiety about rejection, depression, shame, loneliness, stress or anger, aggression, hostility and self-criticism, despair,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lethargy, self-exclusion from relationships, and identity confusion. This study is valuable to identify the extent of preventable nursing interventions related to individual mental health and suicidal ideation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uggests future tool development and field studies of thwarted belongingness.

Key Words : Thwarted belongingness, Concept analysi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Corresponding Author : Su-Hyun Kim(krj1002@naver.com)

Received February 8,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March 15,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나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연간 1만 3799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1]. 자살사망률이 높은 국가들은 지난 30년간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2], 2017년 기준 10-30대의 사망원인 1위, 40-50대 사망원인 2위, 60대 사망원인 4위로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대다수 연령층의 사망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1].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실행, 자살로 인한 삶의 종결은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을 시도하는 빈도가 높아지므로[3], 자살생각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자살예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집단중심적 문화가 강하고[4], 자신의 행동을 타인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중요시하며, 이런 상호의존적인 문화권에서의 자살문제는 흔히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5,6]. 자살과 관련된 대인관계 이론에 의하면, 자살생각을 일으키는 결정적 요인은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이고, 이 중 한 가지가 충족될 때 자살생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살에 대한 생각과 능력이 모두 충족되면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7].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은 소속감이 상실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심리로, 소속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에 대인관계에서 소속감이 좌절될 때 정신건강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며 자살욕구를 경험하게 된다[8].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과 관련된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에 기인한 결과,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청소년, 대학생, 노인과 같이 소속감이 중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8-10], 자살생각의 영향요인 또는 매개변수로서 좌절된 소속감을 파악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8,9]. 선행연구는 좌절된 소속감의 개념을 특정한 계층에 국한하거나 통합적인 개념으로 연구되어, 개념의 대인관계적 특성 파악과 자살생각과 관련된 심도깊은 연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인식된 짐스러움은 좌절된 소속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면서도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명료한 개념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Walker와 Avant의[11] 개념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속성을 규명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좌절된 소속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과 정신건강의 안녕 및 자살의 예방 가능한 증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1]의 개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의 속성을 규명하고, 선행요인, 결과요인 및 경험적 준거를 제시하는 개념분석 연구이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개념을 선정한다.
- 2) 개념분석의 목적을 설정한다.
- 3) 개념의 모든 사용을 확인한다.
- 4) 정확한 속성을 결정한다.
- 5) 모델 사례를 제시한다.
- 6) 추가적 사례(반대, 유사사례)를 제시한다.
- 7) 선행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 8) 경험적 준거를 결정한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문헌조사 범위는 '좌절된 소속감'에 관한 사전적 정의, 좌절된 소속감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포함하였다. 문헌검색 시기는 200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문헌검색을 위해 국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국가전자도서관(NDL)에서 '좌절된 소속감', '대인관계욕구', '자살생각'으로 검색된 학술 및 학위논문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국외는 MEDLINE(PubMed)와 CINAHL, EMBASE를 통해 'Thwarted belongingness', 'interpersonal theory', 'interpersonal needs', 'suicidal ideation'으로 검색된 논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809편의 학술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중복문헌, 전문이 제공되지 않은 연구, 영어 및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술된 연구를 제외하여 280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본 연구주제에 적합한 54편의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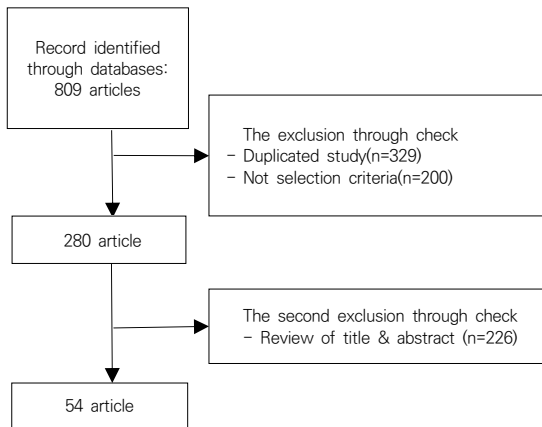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of research selection

3. 연구결과

3.1 좌절된 소속감의 개념 사용 확인

3.1.1 사전적 정의

좌절된 소속감의 사전적 정의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12]에서 좌절은 ‘마음이나 기운이 꺾임’ 또는 ‘어떠한 계획이나 일 따위가 도중에 실패로 돌아감’으로, 소속감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기술되었다. 좌절된 소속감의 영문은 ‘Thwarted belongingness’로 표현된다. 이 개념은 Joiner[7]가 Baumeister와 Leary[13]의 ‘소속욕구’(need to belong)에서 인용한 개념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대인관계나 소속감에 근본적 욕구를 지니며, “need to belong”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자연적인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개인의 안녕 내지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내포한 개념이다[14]. 즉, 소속감은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용어로, 타인과 관계하려는 개인의 노력, 타인을 고려하려는 노력, 타인을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상황으로 관계시키는 느낌, 그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만족하는 느낌을 포함한 것으로 [15], 대인관계에서 이타적 성향이 내재된 개념이다.

따라서, 좌절된 소속감은 대인관계의 근본적 욕구 충족이 좌절된 상태를 의미하며, 욕구의 불충족은 다양한 형태의 정서·인지·발달상 부적응을 나타내고 자기조절에 손상을 가져온다[13]로 정의할 수 있다.

3.1.2 좌절된 소속감 개념의 사용범위

좌절된 소속감은 Shneidman의 좌절된 심리적 욕구

에서 기인되었고, 좌절된 심리적 욕구는 좌절된 사랑, 좌절된 지배욕, 공경받은 자아상, 단절된 관계, 손상입은 통제력의 다섯가지로 분류되며, 심리적 욕구의 좌절은 심리적 고통으로 자살사고에 이어질 수 있다[16]. Joiner[7]는 좌절된 사랑과 단절된 관계를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으로 재정의하고, 대인관계 심리학적 이론에서 자살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된 짐스러움과 함께 제시하였다.

좌절된 소속감은 빈번한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돌봄의 욕구가 결합된 것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소원하여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거나, 타인이 자신을 배려함에도 스스로 타인과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7,13]. 이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 환경 모두에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16],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위계적 단계를 거치므로[17], 소속감의 좌절은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고, 만족은 더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받아 자기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좌절된 소속감의 선행연구를 대상자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기는 충동적이며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거나 조절하여 자신을 돌보는 능력이 미발달된 시기로 [8,19],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또래에게서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어 사회적 유능감과 자존감을 얻는다[20].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이나 외부집단의 소속감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은 자아정체감의 혼란,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자살사고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21].

대학생은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른 친밀 대 고립의 시기로, 타율적 환경에서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과업이며, 타인과 유대감을 가지지 못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고립되게 된다[22]. 대학생의 친밀하고 의미있는 대인관계는 대학생활의 적응, 인격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치미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자살생각과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23].

사회정서적 선택이론[24]에 따르면, 노인은 시간의 유한성으로 정서적으로 의미있거나 만족스러운 일을 목표로 선택하게 되며[25], 사회적 고립과 위축을 경험하거나, 가족 등 중요한 타인으로 멀어지게 되는 등 친밀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다[26]. 노인인 실직, 사별, 독거 등 소속감이 좌절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고, 노인이 지각하는 소속감은 삶의 이유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27].

이상의 문헌에서 파악된 좌절된 소속감은 자살생각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념의 속성 파악을 통해 자살 예방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 미국에서는 사회적지지 부족과 고립감, 관계손실로 수치심 또는 절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등 구체적인 전략으로 개인이 고통받을 수 있는 범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서 고위험군 대상을 언급하고 있을 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계획의 미션과 방향이 충분하지 못하였다[28]. 자살 예방 대책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집중할 때 효과적이므로[28], 좌절된 소속감의 개념을 분석하여 속성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향후 자살 고위험군 예방관련 연구에 기반이 될 것이다.

3.2 좌절된 소속감의 잠정적 기준 목록과 속성

좌절된 소속감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의 잠정적인 기준 목록과 속성을 확인하였다.

3.2.1 좌절된 소속감의 잠정적 기준 목록

- ① 자신이 가족, 친구 또는 다른 가치 있는 집단에서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다[29].
- ②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이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오해석하는 것이다[16].
- ③ 타인이 자신에 대해 관심이 없다 혹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지각하는 것이다[7, 30].
- ④ 가족, 친구, 그룹 혹은 사회 등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집단의 한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다[10].
- ⑤ 타인과 의미 있는 접촉이나 관계를 가지지 못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7].
- ⑥ 가족, 친구 등 의미있는 관계에서 거절된 느낌과 이질감을 가지는 것이다[31,32].
- ⑦ 타인과 단절된 강렬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33,34].
- ⑧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수의 몇 사람과 사

랑과 보살핌을 주고 받는 욕구의 단절이다[7].

- ⑨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보살핌(돌봄)의 정도가 본인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30].

3.2.2 좌절된 소속감의 속성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 좌절된 소속감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왜곡된 신념으로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관계가 단절된 외로운 느낌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돌봄의 정도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다'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속성은 다음과 같다.

- (1) 왜곡된 신념 : ①, ②, ③
- (2) 소속욕구 불충족 : ④, ⑤
- (3) 소외감 : ⑥, ⑦
- (4) 상호 교류와 애정욕구의 불충족 : ⑧, ⑨

3.3 개념의 사례 개발

3.3.1 모델사례(model case)

모델 사례는 개념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며, 타 개념의 속성은 포함하지 않아 명확하게 그 개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0세 김권태 할아버지는 경비일을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다. 최근 아파트 경비인원 감축으로 경비일을 그만 둔 채 집에만 있게 되어(2. 소속욕구 불충족)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1. 왜곡된 신념). 자식이 있지만 연락을 끊고 살아온지 오래되어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며(4. 상호교류와 애정욕구 불충족), 동사무소에서 2주 1회 방문을 하지만 김씨와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충분한 보살핌을 느끼지 못한다(4. 상호교류와 애정욕구 불충족). 직장을 잃은 뒤 특별히 갈 곳이 없는 김씨는 외로움을 자주 느끼며(3. 소외감), '나는 이제 나이가 많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써 줄 곳이 없어'라는 생각 때문에(1. 왜곡된 신념) 우울하고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한다.

3.3.2 반대사례(contrary case)

반대사례는 대상개념의 속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사례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반대상황을 설명함으로써 개념의 속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80세 박옥순 할머니는 혼자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다. 가족의 돌봄이 없지만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하다. 종교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자주 집을 방문해 음식과 생필품을 주는 등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박할머니는 노래를 잘 불러 종교 모임에서 노래봉사를 하면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내가 가야 모임이 활기가 차', '내가 이곳에서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참 감사하지' 박할머니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돌봐줄 가족은 없지만 나를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이 많고 나도 노래봉사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박할머니는 현재의 삶이 행복하고 노후의 삶을 평안히 보내려 노력하고 있다.

3.3.3 유사 사례(Borderline Case)

경계사례라고도 불리는 유사사례는 개념의 중요한 속성 중 일부를 포함하거나 유사하지만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2010). 다음의 예시를 통해서 모델 사례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개념으로 간주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하여 개념의 속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김슬기씨는 20세 대학생이다. 3명의 친구와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학교생활을 해 오던 중 최근 한 친구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다른 2명의 친구들은 평소와 같게 행동하며 연락을 주고 받지만, 예전에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슬기씨는 한 친구와 소원해진 관계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자신을 거절, 배제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괴로웠다(3. 소외감). 갈등을 겪은 친구와 화해하지 못한 슬기씨는 '나만 없으면 친구들이 편하게 지낼 거야'라는 생각과 친구들의 모임에서 자신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1. 왜곡된 신념) 의기소침하고 학교생활이 힘들고

우울하였다.

3.4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 확인

3.4.1 선행요인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을 의미하고, 결과는 개념의 발생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이나 부수적인 조건들을 의미한다[11]. 본 연구에서 확인된 좌절된 소속감의 선행요인은 Fig. 2와 같다.

- 1) 사회적 고립
- 2) 대인관계에서 배제 또는 갈등 경험
- 3) 완벽주의적 성향, 거부민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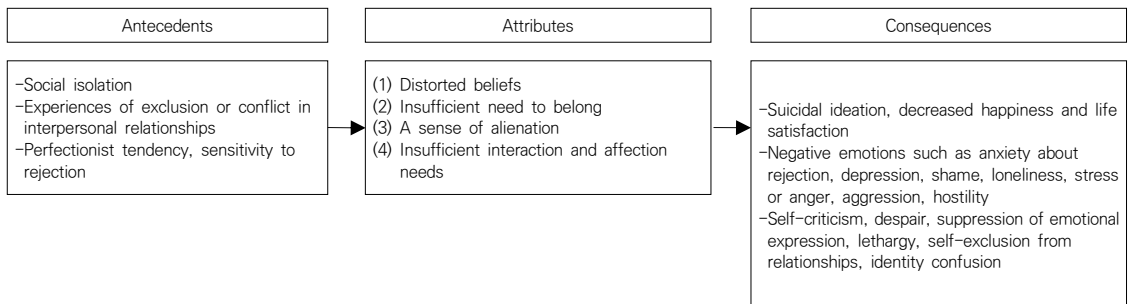
3.4.2 결과 확인

본 연구에서는 확인된 좌절된 소속감의 결과는 Fig. 2와 같다.

- 1) 자살생각, 행복 및 삶의 만족 감소
- 2) 거부에 대한 불안, 우울, 수치심, 외로움, 스트레스 또는 분노, 공격성, 적대감 같은 부정적 정서
- 3) 자기비난, 절망감, 자포자기, 정서표현 억제, 무기력, 관계에서 스스로 배제, 정체성 혼란

3.5 개념의 경험적 준거 확인

경험적 준거는 어떤 개념이 있거나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실제 현상에 대한 구분이나 범주이다[11]. 좌절된 소속감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Van Orden 등[33]이 개발한 대인관계 욕구질문지(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INQ)는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짐스러움'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개념인 좌절된 소속감의 속성에 부분



적으로 부합되나 통합적으로 적용되어, 왜곡된 신념, 소속욕구 불충족, 소외감, 상호교류와 애정욕구의 불충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의 속성에 준한 경험적 준거는 다음과 같다.

- (1) 왜곡된 신념 :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인지
- (2) 소속욕구 불충족 : 유대감 결여
- (3) 소외감 : 단절감, 외로움
- (4) 상호교류와 애정욕구의 불충족 :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빈도와 상호 돌봄 정도

4. 논의

본 연구에서 확인된 좌절된 소속감은 왜곡된 신념, 소속욕구 불충족, 소외감, 상호교류와 애정욕구의 불충족으로 확인되었으며 네 가지 속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좌절된 소속감의 첫 번째 속성은 '왜곡된 신념'으로 도출되었다. 좌절된 소속감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개념이며 소극적 자살사고에 이를 수 있는 정서로[11], 객관적인 대인관계 상황에 의해서만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대인관계에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왜곡되게 해석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다[35]. 왜곡된 신념은 타인이 설정한 높은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 강박과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완벽주의 성향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36],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부당할 것이라는 신념이 개인의 정서와 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37].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에 대한 단서에 과도한 경계를 보이며, 모호하거나 중립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거절로 왜곡되게 지각하여 우울, 질투, 의기소침, 지지의 철회, 타인 통제 등의 반응[38]과 실제 대인관계에서 거부를 유발하여[39], 소속감이 좌절될 수 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소속감의 좌절은 정신건강과 안녕의 심각한 위협으로 자살욕구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11], 왜곡된 신념의 교정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좌절된 소속감의 두 번째 속성은 '소외감'으로 도출되었다. 좌절된 소속감은 타인과 단절된 강렬한 외로움의 느낌이며[33], 가족, 친구 등 개인에게 의미있는 관계의 연결망이나 구조가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거절된 느낌

과 이질감을 가지는 것이다[32]. 소외감을 느끼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외로움,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며 자살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고[34], 자신을 배제시키거나 거절시킨 대상에 대한 공격성도 함께 유발될 수 있다[40]. 따라서, 대인관계 속에서 소외된 느낌으로 정신건강 및 대인관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상호이해를 통해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여 자신에게 의미있는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좌절된 소속감의 양면성으로 원인을 내부 귀인화하면 우울, 자기 비난 등을 느끼나, 외부 귀인화하면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므로[41],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귀인 양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상황으로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좌절된 소속감의 세 번째 속성은 '소속욕구 불충족'으로 도출되었다. 좌절된 소속감은 가족, 친구 등 개인에게 의미있는 집단의 한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못하는 느낌으로[10],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42].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 안에서 존재하고, 대인관계욕구는 인간의 존재 및 가치감의 근간이므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소속욕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면[42], 불안, 스트레스, 우울, 삶의 의미상실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13]. 반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집단에 속하여 함께 하는 행동은 소속감의 느낌을 갖게 하여 자살생각을 낮추게 된다[43]. 따라서, 독신, 사별, 실직, 집단따돌림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대상자들이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존재로서 가치감 향상을 위해 가족, 친구, 사회공동체 등의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좌절된 소속감의 마지막 속성은 '상호교류와 애정욕구의 불충족'이다. 좌절된 소속감은 타인과 상호작용이 빈번하지 못하고 돌봄의 정도가 충족되지 않아 대인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다[30]. 소속욕구는 단순히 단체나 집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해 타인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13]. 따라서 개인에게 의미있는 사람들과 애정과 돌봄을 주고 받으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소속욕구의 충족으로 자살생각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다만, 상호작용을 통한 감정 공유 및 정서적 지지는 남성보다 여성의 심리적 안녕과 자살 위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44], 성별에 따른 차이 및 개인의 성 정체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좌절된 소속감의 선행요인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 배제 혹은 갈등 경험, 개인의 완벽주의적 성향 또는 거부 민감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자살생각, 행복 및 삶의 만족 감소, 거부에 대한 불안, 우울, 수치심, 외로움, 스트레스 또는 분노, 공격성, 적대감 같은 부정적 정서, 자기비난, 절망감, 자포자기, 정서표현 억제, 무기력, 관계에서 스스로 배제, 정체성 혼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 및 평가를 중요시하는 상호의존적인 문화에서 타인으로부터 애정과 호감을 얻는 것은 중요하며 거부 및 소외의 경험은 매우 두려운 일이 된다[9]. 주·객관적인 거부경험과 같은 누적된 대인관계의 외상은 좌절된 소속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45], 부정적 정서와 개인의 안녕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교정하고, 소속 욕구의 충족의 통해 소외감을 극복하며, 상호교류와 돌봄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자살생각과 관련된 대인관계 이론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중 하나인 인식된 짐스러움의 결정적 속성은 인지의 왜곡, 무능력, 부정적 자아상, 대인관계, 통제력 상실으로[46], 본 연구에서 도출된 좌절된 소속감의 속성과 인지의 왜곡, 대인관계는 유사하나, 무능력, 부정적 자아상, 통제력 상실과는 차이가 있었다. 인식된 짐스러움의 속성은 대인관계에서 주로 자신을 향한 주관적 평가의 문제이나, 좌절된 소속감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중점을 둔 개념으로 소속감의 개념이 이타적 성향을 포함한 것의 차이로 생각되며, 본 연구를 통해 두 개념은 유사하면서도 구별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좌절된 소속감(Thwarted belongingness)의 개념을 분석하고 결정적 속성을 규명하여, 좌절된 소속감의 세부 영역을 파악하고 개념을 명료화하여 추후 심도깊은 연구에 기준을 제공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대인관계와 관련된 개인의 정신적 건강 및 자살생각과 관련된 예방 가능한 간호중재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자살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Walker와 Avant[11]의 개념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좌절된 소속감의 개념을 분석한 연구이다. 개념분석 결과, 좌절된 소속감의 개념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왜곡된 신념으로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관계가 단절된 외로운 느낌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돌봄의 정도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다'로 정의되었다. 좌절된 소속감에 대한 개념은 대인관계욕구 및 자살생각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나 통합적 개념으로만 연구되어져, 본 연구를 통해 세부 영역을 확인하여 다른 유사개념과 구별하고 관련 연구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었음에 의의가 있다. 다만, 좌절된 소속감은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대부분 연령층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나, 문화권에 따른 해석의 신중함이 필요하며 향후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대상자별 좌절된 소속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및 현장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속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02). *Results of the death statistics in 2019*. http://kostat.go.kr/assist/synap/preview/skin/doc.html?fn=synapview385219_1&rs=/assist/synap/preview
- [2] OECD. (2020). *Health Statistics : Causes of mortality (Intentional self-harm)*. <http://stats.oecd.org>
- [3] B. G. Lim. (2010).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mployment stress and self-efficacy on suicidal ideation*. Master's thesis. Cho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 [4] S. C. Choi & I. J. Choi. (2002). The effects of Korean cultur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coping styles,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Centering around cheong and we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1), 55-71.
- [5] L. M. Range, M. M. Leach, D. McIntyre, P. B. Posey-Deters, M. S. Marion, S. H. Kovac, J. H. Banos, & J. Vigil. (1999).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uicid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4), 413-430.
- [6] J. Shiang. (2000). Considering cultural beliefs and behaviors in the study of suicide. *American Association of Suicidology Annual Preconference Workshop: Suicide Update, 1997., Apr. 1997, Memphis, TN, US*. New York : Guilford Press.
- [7] T. E. Joiner.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US : Harvard University Press, 276.
- [8] D. H. Lee.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ttachment,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and suicidal thoughts: Focused on joiner's*

- interpersonal psychological model*.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9] W. K. Choi & J. S. Kim.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2(1), 1-25.
DOI : 10.35151/kyci.2014.22.1.001
- [10] I. S. Nam. (2018). Pat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lone and suicide ideation in Korean older adults. *Journal of Social Science*, 29(2), 211-226.
DOI : 10.16881/jss.2018.04.29.2.211
- [11] L. O. Waker & K. C. Avant. (2005).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 Hall.
- [1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9). The Korean standard dictionary [Online].
<https://stdict.korean.go.kr>
- [13] R. F. Baumeister & M. R. Leary.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DOI : 10.1037/0033-2909.117.3.497
- [14] I. H. Yun & H. S. Kweon. (2019). An explanation of South Korea's suicide rates: Focusing on thwarted belongingness and gene-culture coevolu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General*, 38(1), 103-126.
DOI : 10.22257/kjp.2019.3.38.1.103
- [15] R. M. Ryan & E. L. Deci.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DOI : 10.1037/110003-066X.55.1.68
- [16] E. S. Shneidman. (1993). Commentary: Suicide as psychac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1(3), 145-147.
DOI : 10.1097/00005053-199303000-00001
- [17] K. A. Van Orden, T. K. Witte, K. C. Cukrowicz, S. R. Braithwaite, E. A. Selby & T. E. Joiner.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DOI : 10.1037/a0018697
- [18] A. H. Maslow.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Y : Harper.
- [19] S. H. Ji, M. S. Kim, S. G. Oh, E. Y. Kim & S. S. Lee. (2008).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program and interventive measure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41.
- [20] J. Y. Hong & H. S. Doh. (2002). Parental marital conflict,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5), 125-136.
- [21] K. J. Chu. (2011). *The relationship among the perceived burdensomeness,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and older adul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2] E. H. Erikson. (1997). *Identity: Youth and crisis*. 1st ed. Lee BY, translator. Seoul : Samsung.
- [23] J. J. Kim. (2009). An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suicidal ideation: Regarding effect of suicidal attempt experience, mental health, psychosocial problem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2(1), 413-436.
- [24] L. L. Carstensen. (1995). Evidence for a life-span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5), 151-156.
DOI : 10.1111/1467-8721.ep11512261
- [25] L. L. Carstensen & J. A. Mikels. (2005). At the intersection of emotion and cognition: Aging and the positivity effec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3), 117-121.
DOI : 10.1111/j.0963-7214.2005.00348.x
- [26] M. M. Cornette, T. A. deRoon-Cassini, G. M. Fosco, R. L. Holloway, D. C. Clark & T. E. Joiner. (2009). Application of an interpersonal-psychological model of suicidal behavior to physicians and medical trainee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3(1), 1-14.
DOI : 10.1080/13811110802571801
- [27] M. Kissane & S. McLaren. (2006). Sense of belonging as a predictor of reasons for living in older adults. *Death Studies*, 30(3), 243-258.
DOI : 10.1080/07481180500493401
- [28] S. M. Chae. (2020). Trends in suicide and identification of high-risk group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82, 55-66.
- [29] J. D. Ribeiro & T. E. Joiner. (2009). The interpersonal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12), 1291-1299.
DOI : 10.1002/jclp.20621
- [30] S. Y. Kim. (2013). *Suicidal ideation of lesbians and gays in South Korea: Test of interpersonal psychological model*.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31] H. W. Kim, Y. G. Kim, & Y. G. Kim. (2020).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21(3), 779-806.
DOI : 10.15753/aje.2020.09.21.3.779
- [32] S. B. Sarason.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CA : Jossey-Bass.
- [33] K. A. Van Orden, T. K. Witte, K. H. Gordon, T. W. Bender & T. E. Joiner.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 76(1), 72-83.
DOI : 10.1037/0022-006x.76.1.72
- [34] Y. J. Cho, S. P. Yuk & E. J. Kim. (2018).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factor in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6), 223-232.
DOI : 10.14400/JDC.2018.16.6.223
- [35] A. T. Beck. (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 Perennial.
- [36] G. L. Flett, A. Besser, R. A. Davis & P. L. Hewitt. (200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1(2), 119-138.
- [37] P. L. Hewitt, G. L. Flett, S. B. Sherry & C. Caelian. (2006). Trait perfectionism dimensions and suicidal behavior. In T. E. Ellis(Ed.), *Cognition and suicide: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215-23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 : 10.1037/11377-010
- [38] G. Downey & S. I. Feldman.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DOI : 10.1037/0022-3514.70.6.1327
- [39] H. R. Rye & K. H. Park. (2014). The moderational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1), 203-218.
DOI : 10.17315/kjhp.2014.19.1.011
- [40] C. N. DeWall, J. M. Twenge, S. A. Gitter & R. F. Baumeister. (2009). It's the thought that counts: The role of hostile cognition in shaping aggressive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1), 45-59.
DOI : 10.1037/a0013196
- [41] Y. S. Kwon, H. Y. Lee, S. C. Kim, M. H. Hyun. (2016). The effects of thwarted interpersonal needs on perceived sense of no meaning and purpose about life and physical pain tolera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4), 877-893.
DOI : 10.17315/kjhp.2016.21.4.012
- [42] J. M. Ha, Y. U. Seol & M. G. Jwa. (2010). The effect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failed belongingness to youth's suicidal ide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6(4), 223-246.
- [43] T. Joiner, D. Hollar, & K. Van Orden. (2006). On buckeyes, gators, super bowl sunday, and the miracle on ice: "Pulling Together" is associated with lower suicide rat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2), 179-195.
DOI : 10.1521/jscp.2006.25.2.179
- [44] H. G. Son & G. S. Yoo. (2016). The effects of future orientation on suicide related frustration of interpersonal needs among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roles attitudes. *The Women's Studies*, 91(2), 37-71.
DOI : 10.33949/tws.2016.91.2.002
- [45] E. K. Poindexter, S. M. Mitchell, S. L. Brown & K. C. Cukrowicz. (2020). Interpersonal trauma and suicide ideation: The indirect effects of depressive symptoms,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DOI : 10.1177/0886260520917513
- [46] E. K. Joo. (2019). Concept analysi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6).
DOI : 10.22143/hss21.10.6.89

김 수 현(Su-Hyun Kim)

[정회원]



- 2019년 8월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석사)
- 2019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정신건강 및 간호교육
- E-Mail : krj1002@naver.com